

[최신산업간호연구동향]

남성 사무직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간기능 이상과의 관련성

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Liver Dysfunction among Male
White-Collar Workers

홍정연 · 김형렬 · 이보람 · 김용규 · 구정완 · 박정일
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산업의학과,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
및 산업의학센터/산업의학회지 제21권 2호(2009)

목적 :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간기능 이상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.

방법 : 근로자 건강검진에 참여한 남성 사무직 근로자 664명을 대상으로, 응답자 직접 기입식 건강검진 문진 및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(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)의 결과와 각 근로자의 간기능 검사결과를 통해 간기능 이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.

결과 : 직무요구도 및 전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에서 간기능 이상률이 증가하였다. 음주 행동과 BMI에 따라 근로자 군을 분류하였을 때, 직무요구도 및 전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에서 간기능 이상률이 증가하였다. 불건강 음주를 하는 군과 BMI 25이상 비만자 군의 경우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이 간기능 이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결론 : 직무요구도 및 전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에서 간기능 이상과 관련성을 보였다.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직적 관리 및 접근을 통해 간기능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.